

**일. 죄 사함에 관한 논쟁. 막 2:1-12.**

- ❖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습니다(막 2:1-2. 예수님은 말씀을 멈추셨고 집안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지 지켜봤습니다(막 2:3-4).
- ❖ 예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중풍병의 근원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중풍병환자는 자신의 죄 사함을 받고 영혼에 평화누렸습니다 (**막 2:5**).
- ❖ 이를 지켜보던 종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막 2:8-11).
- ❖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막 2:12; 마 9:8). 그 중풍병환자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편견에) 눈이 멀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음식에 관한 논쟁. 막 2:13-22.**

- ❖ 바리새인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기는 커녕 요한의 제자들을 선동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며 같이 예수님을 비판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막 2:18).
- ❖ 예수님은 여기야말로 구원할 죄인들을 찾기 가장 쉬운 곳이라고 하시며 그분을 향한 비난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셨습니다 (막 2:17 또 그들에게 자기 감정을 잘 살펴보라고 충고하시고 사랑(공화를 베푸는)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마 9:12-13).
- ❖ 바리새인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기는 커녕 요한의 제자들을 선동해서 "같이 예수님을 비판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막 2:18).
- ❖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 결혼식의 비유 (막 2:19-20). 결혼식에 가서 음식을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신랑은 예수님을 뜻하고, 손님은 제자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금식해야 했습니다.
  - 새 가죽부대와 낡은 가죽부대 (막 2:21-22)).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죽은 전통에 담을 수 없었고, 반대로 사람들의 전통은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삼. 안식일에 관한 논쟁. 막 2:23-3:6.**

- ❖ 제자들이 안식일에 밭에서 곡식을 따서 손으로 걸 껍질을 비벼서 제거하고 먹은 행동은 모두 안식일에 금지된 항목들, 즉 추수; 껍질을 벗김; 그리고 바람에 날려 알곡을 고름에 들어 있었습니다(막 2:23-24; 마 12:1-2).
  -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이 자기와 밭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 고프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막 2:25-26)고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 ❖ 그 후 예수님은 39 가지 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 곧 병든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막 3:1-3).
  -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막 3:4)고 되물으셨습니다).
- ❖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막 2:27-28).
- ❖ 어처구니 없게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이 뒤에서 (예수님의) 살인을 계획했습니다(막 3:6).

**사.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쟁들:**

❖ **그는 누구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가? 막 3:22-30.**

-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던 마가는 잠시 멈추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잡았던 논쟁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가족이야기로 돌아가서 문장을 마칩니다. 마가는 두가지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 중에 가운데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문장(샌드위치 문장)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 (1) 막 3:20-21. 예수님의 가족이 그분을 찾아옴.
  - (2) *막 3:22-30. 바리새인들의 비난.*
  - (3) 막 3:31-35. 예수님의 가족이 그분을 찾아옴.
-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에 대한 서기관(바리새인)들의 (거짓)비난입니다(막 3:22).
- 다시 한번,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에 대한 비난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막 3:23-27). 예수님은 강한 자(사탄)의 집에 들어가 그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사탄의 것들을 뺏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 또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사탄이 한 짓이라고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셨습니다(막 3:28-30).

❖ **예수님은 미쳤(정신병)는가? 막 3:20-21, 31-35.**

-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까(막 3:20-21)?
- 마가는 짧게 논쟁점을 설명한 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소개합니다 (막 3:31).
- 예수님의 행동은 자기 가족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막 3:32-33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을 오해 하기 쉽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보기위해 그분의 사역을 뒤로하거나, 그분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일하는 현장을 떠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그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 사람들과의 친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영적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막 3:35).